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이슬람 정책의 변화

Andreas Kappeler. 2010. "Czarist Policy toward the Muslims of the Russian Empire." In Bhavna Dave, ed. *Politics of Modern Central Asia. I. Encounters with Modernity: Russian and Soviet Rule*. London; N.Y.: Routledge.

Adeeb Khalid. 1998. *The Politics of Muslim Cultural Reform: Jadidism in Central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aniel Brower. 1997. "Islam and Ethnicity: Russian Colonial Policy in Turkestan." In Daniel R. Brower and Edward J. Lazzerini, ed. *Russia's Orient: Imperial Borderlands and Peoples, 1700-1917*.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양승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I.

이슬람 세계와의 접촉과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유럽 세계와 이슬람 세계 사이의 교류는 이슬람 공동체가 수립되어 오리엔트 지역의 패자로 등장한 7세기 이래로 지속되어 온 긴 과정이다. 중세 시기 대부분에 걸쳐 수세적 입장에 있었던 유럽은 중세 말 이래로 관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으며, 근대에 들어서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 세계가 이슬람 지역을 직접 지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에 따라 양상이 달랐다.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이것이 근대에 들어와 제국주의적 식민 지배를 하게 된 이후인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던 반면, 러시아에서는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다. 이미 키예프 루시 시기부터 슬라브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불가르가르로 인해 이슬람 국가와 경계를 접하였으며, 이후 주변 지역으로 영토를 팽창해 가면서 유럽 국가로서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슬람교도들을 신민으로 복

속하여 다스리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는 유럽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슬람과 무슬림에 관심을 가지고 통치 정책을 수립해 왔다.

이렇듯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진 제정 러시아의 대 무슬림 정책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러시아가 이슬람과 처음 접촉하기 시작한 10세기에서 19세기 전반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 러시아의 이슬람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관용과 인정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기는 19세기 후반에서 1917년까지의 기간으로,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완전히 병합해 가는 것과 겹치는 이 시기에 제정 정부는 러시아 내에 살고 있던 무슬림을 계몽과 개종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정 러시아의 대 이슬람 정책 변화상을 러시아인들의 이슬람 접촉사라는 흐름 속에서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II.

러시아와 이슬람 공동체 사이의 초기 접촉은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불가르족의 일파가 7세기 중엽 불가 강 중류에 건설한 불가 불가르¹가 10세기 초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러시아는 이슬람 국가와 직접 경계를 접하게 되었다(Mako, 2011: 199). 나아가 13세기부터 키예프 루시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몽골 계통의 킵차크 칸국이 14세기에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자 러시아인들은 무슬림의 지배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정교도와 무슬림 사이의 정치적·군사적 관계는 모스크바국이 성립되면서 역전되기 시작했다. 이반 4세에 의한 카잔 칸국과 아스트라한 칸국 정복은 피지배 슬라브인이 지배 유목기마민족을 굴복시킨 정치적 정변이자 정교도가 이슬람교도를 복속한 종교적 역전이었다. 이후 러시아 측은 영토로 편입된 이슬람 지역과 신민이 된

¹ 흑해 북부 드네프르 강 연안에 위치해 있던 대불가리아(Magna Bulgharia)가 7세기 중반에 붕괴된 후, 그 일파가 동쪽으로 이동하여 불가 강 우안을 거슬러 올라가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것이 불가 불가르다(Mako, 2011: 200).

무슬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로운 과제로 안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러시아인들은 이슬람과 무슬림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먼저 전통적 해석이 있다. 이 입장은 루시 시대 이래로 20세기 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시각으로, 기본적으로 러시아 영토 내에서 슬라브족과 이종족 사이의 관계를 그리스도교(정교) 대 이교(이슬람)라는 틀 속에서 해명하고 있다. 즉, 전통적 해석은 정교도의 입장에 서서 무슬림을 복속과 개종의 대상으로 설명하였으며, 양자 사이의 교류 또한 부정과 대립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러시아 역사에 대한 사료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루시 시기 교회 자료들은 슬라브족과 킵차크 칸국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거의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고 있다(Kappeler, 2010: 30).

러시아의 이슬람 정책을 종교적 차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전통적 해석은 오늘날 서방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정주의적 해석의 도전을 받고 있다. 서방 역사가들은 고고학이나 인류학과 같은 다양한 인접 학문분과들의 방법론과 성과물의 도움을 받아 몽골 지배기 루시 지역에서 정교 슬라브인들과 이슬람 몽골 칸들 사이에서 협조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규명해 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서방 역사가들은 제정 정부가 주변 이종족들을 제압한 이후 시행한 이슬람 정책의 기본 특징을 “이념적 투쟁과 실용적 정책 사이의 간극”이라고 규정하면서, 러시아 지역 내에서 정교와 이슬람 사이의 관계를 대립은 물론이고 협조의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조망하려 시도하고 있다(Kappeler, 2010: 30). 예를 들어, 크루스(R. Crews)는 예카테리나 2세부터 니콜라이 2세에 이르는 시기 동안 제정 러시아에서 수행된 이슬람 정책을 살펴보면, 비록 표트르 1세 이래로 얼마 동안 모스크를 파괴하고 무슬림을 정교도로 강제 개종시키는 예외적인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지만, 예카테리나 2세 이래로 러시아 행정기관들은 비교적 관용적인 이슬람 정책을 입안하였으며, 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Crews, 2006). 이러한 수정주의적 입장은 러시아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두 집단인 슬라브족과 이종족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입체적으로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III.

10세기부터 제정이 붕괴되기 이전까지 러시아 당국의 대 이슬람 정책을 수정주의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카펠러(A. Kappeler)의 연구는 제정 러시아의 이슬람 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러시아사 전반을 거의 아우르는 시기를 배경으로 러시아 당국과 무슬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카펠러의 연구는 대 이슬람 정책의 변화라는 기준에 따라 슬라브족과 무슬림 사이의 관계사를 - 비록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카펠러가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시기는 10세기부터 표트르 1세 통치기 이전까지로, 슬라브인들이 지배하는 러시아 국가 내에서 정교도와 무슬림이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일종의 밀월기라고 할 수 있다. 루시의 동북부 지역을 통일한 모스크바국은 이후 과거 킵차크 칸국이 통치했던 지역으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인적 자원을 충원하기 위해 통치 세력은 무슬림을 국가 구성원의 일원으로 수용하였으며, 심지어 그 지배층을 귀족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은 통치 집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무슬림 엘리트들에게 슬라브 지배층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선택 또한 존중해 주었다. 이에 따라 무슬림을 정교도로 개종하려는 정교회의 시도들은 인적 자원의 확보와 활용이라는 정치적 필요에 밀려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Kappeler, 2010: 29-33).

이슬람에 대한 이러한 배려는 표트르 1세 통치기에 위기를 맞게 된다. 이 시기에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사회가 안고 있는 후진성을 유럽화를 통해 극복하려 했다. 근대적 유럽 국가의 토대로서 러시아 사회는 보다 단순화되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종교 또한 유럽에서처럼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단일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이슬람과 무슬림 사회의 전통은 러시아 제국 근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국가를 보다 통일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강압, 차별, 경제적 유인 등을 통해 무슬림을 정교도로 개종시키려는 정책

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카펠러에 따르면, 이러한 반 이슬람 정책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크림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이라는 두 군데의 중요한 이슬람 지역을 병합하게 된 예카테리나 2세 정부는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강경책을 포기하였다. 즉, 이 새로운 영토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정 정부는 이슬람에 대한 전통적인 유화책을 다시금 도입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관계는 19세기 전반까지 유지되었다(Kappeler, 2010: 33-34).

세 번째 시기는 19세기 후반부터 제정 몰락까지다. 이 시기에 제정 러시아 정부는 크림전쟁 패배를 통해 인식하게 된 러시아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근대화 정책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추진했다. 개혁과 근대화 추진으로 급변하고 있던 정치적·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정 정부의 이슬람 정책도 본질적으로 변화 과거와 같은 유화책 대신 강경책을 채택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이 시기에 제정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을 병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이슬람 지역의 병합이 수용과 인정이라는 정책적 유연성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 뒤에는 러시아 지배층과 정부 인사들이 이슬람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 새로이 병합한 지역으로의 슬라브계 이주민 문제,² 무슬림과 유목민에 대한 슬라브계의 시선 변화,³ 사회 통합의 중요성 부각,⁴ 식민주의적 경제정책⁵ 등과 같은 이유로 무슬림과 유

² 18~19세기에 유럽러시아 지역에서 슬라브계 인구가 급증하면서 새로이 병합한 무슬림 거주 지역으로 이주가 적극 추진되는데, 이에 따라 이 지역들에서는 기존의 무슬림과 새로이 이주해 온 슬라브계 러시아인 사이에서 토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Kappeler, 2010: 35-36).

³ 러시아 초기 역사 시기에 무슬림과 유목민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 면에서 우월한 입장에 있었다. 이에 따라 슬라브인들과 유목민 사이의 관계가 역전된 이후에도 양자 간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는 동료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이래로 정부가 유럽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러시아 엘리트 사이에서는 자신들을 문명화된 유럽인으로, 유목민을 개명(開明)해야 할 원시적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널리 확산되었다(Kappeler, 2010: 36-37).

⁴ 이 시기 제정 러시아의 지식인들과 관료들은 근대화를 사회구조의 단순화와 체계화로 상정하면서 정교 이외의 신앙이나 무슬림 사회의 전통은 사회의 통합과 평준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치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슬림을 정교로 개종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Kappeler, 2010: 38).

⁵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 근대화는 사회개혁과 산업화를 모두 추구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성과를 낸 것은 경제 부문뿐이었다. 근대화 개혁의 결과 제정 말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으며, 이와 함께 상품 생산에 필요한 광물 자원과 원료의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바쿠

목민에 대한 슬라브인들의 인식은 동등한 존재에서 열등한 야만인으로 크게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슬림에 대한 정책도 수용을 통한 점진적 통합에서 계몽을 통한 적극적 동화로 선회했다. 카펠러의 기술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 정부의 대 이슬람 정책에서 커다란 전환이 있었다고 기술하면서, 동시에 이 시기 차르 체제 역시 과거의 “전통적으로 실용적인 패턴”을 정책 기조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특별한 근거 제시 없이)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Kappeler, 2010: 34-40).

결론적으로 카펠러는 몇 차례의 단속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련 수립 이전까지 러시아 당국의 대 이슬람 정책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흐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을 그는 “실용적 유연성(pragmatic flexibility)”(Kappeler, 2010: 31)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의 대 이슬람 정책을 ‘실용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카펠러의 설명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먼저, 카펠러의 설명은 모스크바국 시대와 예카테리나 2세 시대의 이슬람 정책들이 모두 ‘실용적 유연성’이라는 기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두 시기에 나타나는 ‘실용적 유연성’(들)에 내포되어 있는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즉, 앞의 시기에서는 한때 슬라브인들을 지배했었던, 그러한 의미에서 모스크바국이 정치적·군사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된 이후에도 대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존재로서의 무슬림을 현실적 필요에 따라 협력자로 받아들인 것이었다면, 표트르 1세의 서구화 개혁이 진행된 이후인 예카테리나 2세 시대에는 비유럽적이고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 필요가 보다 크게 요구되었기에 유연한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 정부의 대 이슬람 정책을 이전 시기의 ‘실용적 유연성’이라는 정책의 연장으로 보는 카펠러의 설명은 문제가 있다. 사실 카펠러는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 정부가 추진한 이슬람 정책과 그 파급 효과를 무슬림과 슬라브계 주민 사이의 분쟁, 무슬림 유목민족에 대한 슬라브인들의 인종주의적 시각,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식민지 착취 경제 등으로 특징짓고 있다(Kappeler,

의 유전, 중앙아시아의 목화 등이 러시아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에 따라 식민주의적 방식으로 개발되었다(Kappeler, 2010: 38).

2010: 35-38). 따라서 카펠러가 말하는 ‘실용적 유연성’이 슬라브족과 이종족 사이의 상호 인정과 협조를 전제로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면, 19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러시아 당국의 대 이슬람 정책은 이러한 개념에서 벗어난 행위였다.

IV.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침략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범주를 어떻게 잡느냐⁶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기준을 현 카자흐스탄 중남부 아래 지역에 대한 병합으로 잡게 되면 제정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1853년 코칸드(Kokand) 칸국의 요새인 아크 마스지드(Aq Masjid)⁷를 점령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체르냐예프(M. Г. Черняев)는 이 시기 활동한 대표적인 장군으로, 그가 이끄는 러시아 원정군은 1865년에 타슈켄트를 점령했고, 1866년에는 부하라 아미르국으로 진격하여 무자파(Muzaffar) 아미르가 이끄는 군대를 격파했다. 당시 러시아군은 부하라 아미르국을 완전히 병합할 수도 있었으나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할양받고 러시아 상인의 활동 권리를 보장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했다⁸ (Khalid, 1998: 46-47).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강자로 군림하게 된 러시아는 점차 이 지역을 직접적인 지배 지역으로 통합해 나갔다. 1873년 조약으로 러시아의 보호국이 된 부하

⁶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범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서, 좁게는 러시아의 공식적 입장인 4개 ‘-스탄’ 계열 국가들(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로 보는 입장에서부터 몽골, 신장, 티베트, 아프가니스탄 등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범주까지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엄구호(2012: 125-129)를 참조하라.

⁷ 현 카자흐스탄의 키질로르다(Kyzylorda)의 옛 명칭이다.

⁸ 당시 러시아군이 부하라 아미르국을 병합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새로운 지역을 병합했을 때 필요한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둘째, 인도를 중심으로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던 영국과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였으며, 셋째,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을 통치하는데 따르는 불확실성 때문이었다(Khalid, 1998: 47).

라 아미르국은 한때 영토적으로 크게 팽창하기도 했다. 정복 초기 교통상의 문제와 재정적 압박으로 제정 정부는 원정을 통해 복속시킨 지역들 중 많은 부분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 복속시킨 영토들 중 일부에 대한 통치권을 자신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 부하라 아미르국에 위임했던 것이다.⁹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제정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부하라 아미르국의 자치권과 영토는 축소되어 갔다. 한 예로, 1880년대에 카스피해 횡단철도(Transcaspian Railway)가 건설되자 제정 러시아는 이 노선상에 있는 철도와 기차역들이 러시아의 직접 지배 지역임을 확인하는 조약을 부하라 아미르국과 체결했다. 그나마 부하라 아미르국은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 있었던 예로, 실제로 부하라 아미르는 1920년까지 통치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히바 칸국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다른 지역들은 제정 러시아의 직접 통치 지역으로 복속되었다. 그 결과 제정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남쪽 경계와 관련하여 영국과 조약을 맺을 때까지 남하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대부분을 병합하였으며, 이 지역을 러시아 중앙과 연결함으로써 러시아의 직접 영토로 편입시키는 데 성공했다(Khalid, 1998: 47-50).

중앙아시아 지역이 제정 러시아 본토와 결합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들 중 하나가 교통통신망이었다. 예를 들어, 1873년 6월에는 타슈켄트에 전신국이 만들어졌고, 1875년 5월에는 최초의 은행이 개점했다. 그리고 교통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도 이 지역을 러시아 본토와 연결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철도였다. 군사적 목적으로 계획되어 카스피해에서 사마르칸트를 거쳐 타슈켄트에 이르는 노선으로 건설된 카스피해 횡단철도가 1900~1906년에 걸쳐 구축된 오렌부르크-타슈켄트 철도노선과 연결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과 러시아 본토 사이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Khalid, 1998: 61-62).

경제적으로는 철도 개통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사이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와 인도 사이의 상품 교류가 훨씬 빨라지고 싸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⁹ 예를 들어, 1873년에 러시아는 아무 다리야(Amu Darya) 우안지역을 부하라 아미르국에 양도하도록 히바 칸국(Khiva Khanate)에 압력을 행사했다(Khalid, 1998: 48).

중앙아시아 전통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당시 이 지역에서 중요성과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경제활동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던 대상 무역이 철도 건설에 따른 경제적 변화로 인해 몰락하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로부터 산업 생산품이 들어오게 되면서 수공업 중심을 하는 토착 산업 또한 붕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아시아는 지역경제를 살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만 했는데, 그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면화다. 제정 말 유럽러시아와 러시아령 폴란드에서 발전하고 있던 섬유 산업에서는 많은 양의 면화를 필요로 했다. 이때 미국산 면화를 대신해서 급격하게 커지고 있던 국내 면화 수요를 충족시키는 대체 공급처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중앙아시아 지역이었다. 즉, 안정적인 국내 생산지의 확보라는 제정 정부의 의도와 대체 상품 개발이라는 지역적 요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면화 재배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주요한 배경이었다.¹⁰ 면화 생산과 교역의 발전은 이 지역의 사회구조에도 변화를 주어서, 면화를 집하하는 중개상과 면화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부농층이 주요한 사회계층으로 빠르게 부상했다(Khalid, 1998: 62-66).

V.

제정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 진출했을 당시, 이 지역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무슬림이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도입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그 확산은 오랜 시간에 걸친 장기적인 과정이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슬람이 처음 들어온 것은 7세기 중엽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이며, 8세기 초에는 이 지역 지배집단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Gunn, 2003: 389).¹¹ 그러나

¹⁰ 예를 들어, 1888~1916년에 걸친 30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페르가나(Ferghana) 주, 시르 다리야(Syr Darya) 주, 사마르칸트 주의 세 지방들에서 면화 파종지 면적은 무려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Khalid, 1998: 63 <표 2>).

¹¹ 이 시기에 중앙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들 중 하나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로 개척으로 인해 육로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Hann and Pelkmans, 2009: 1520-1521).

이슬람이 이 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종교가 되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필요했다.

중앙아시아 이슬람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 주요 요소로는 먼저 하나피(Hanafi)를 들 수 있다. 하나피는 수니 이슬람에서 인정하는 네 개의 율법학파들¹² 중 하나로, 오늘날 서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 퍼져 있다. 중앙아시아 하나피는 다른 지역에 비해 관대해서, 믿음(belief)을 의식(practice)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의식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실천적 신앙(practical devotion)에 보다 중점을 두고, 공동체와 개인의 견해 일치를 이슬람 종교관습(sunnah)의 엄격한 적용보다 위에 두고, 형벌, 이혼, 여성관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관대하며, 종교적 문제에 있어 견해 차이를 인정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Gunn, 2003: 395-396).

하나피와 더불어 중앙아시아 이슬람화에 중요하게 작용한 또 하나의 요소로는 수피 타리카(Sufi tariqa)¹³를 들 수 있다. 수피 종단은 음악이나 춤과 같은 독특한 행위들로 인해 정통 이슬람교도들 사이에서는 이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슬람화하는데 있어 수피 종단의 역할은 매우 커서, 예를 들어 키르기즈(Kyrgyz)에 대한 이슬람 전파는 거의 전적으로 수피 선교사들에 의해 수행되었다(Gunn, 2003: 397). 이처럼 수피 종단들이 중앙아시아 이슬람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외부 세계의 정치적 변화 때문이었다. 본질적으로 수니 계열로 분류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16세기 이래로 중앙아시아 서부에 등장한 두 개의 거대한 정치 세력, 즉 북쪽으로부터 영토를 팽창해 오고 있던 정교국가인 제정 러시아와 서쪽에 수립된 시아파 이슬람 국가인 사파비 제국으로 인해 수니 신앙 중심지와 지리적으로 단절되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전파에 열성을 보인 것은 수피 종단들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에서는 신비주의적 경향이 강한 수피 신앙이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Hann and Pelkmans, 2009: 1521).

¹² 수니 이슬람의 네 율법학파는 하나피(Hanafi), 한발리(Hanbali), 말리키(Valiki), 샤파피(Shafi'i)다.

¹³ 타리카(tariqa)는 수피 종단에서 신을 인식하기 위해 행하는 수행의 길, 또는 이러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중앙아시아 정복 이후 제정 러시아의 이슬람 정책은 어떠했는가? 브라우어(D. Brower)에 따르면, 이 시기 중앙아시아에서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특징에 있어서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이슬람에 대한 제정 러시아의 대치는 관대한 편이었다. 사실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걸친 시기에 제정 러시아가 변경 지역에 있던 이종족과 이교도들에 대해 시행한 정책은 정복, 행정적 통합, 강제 개종과 같이 강경한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와는 달리 상당히 유연하고 관용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정 당국 내에서 계몽주의에 기반을 둔 대 이민족 정책이 강경책을 누르고 수용되었기 때문이었다(Brower, 1997: 116).

1867년에 투르케스탄 총독(governor-general)에 임명되어 1881년까지 이곳을 다스렸던 카우프만(K.P. Kaufman)은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들 중 한 명이었다. 카우프만 역시 강경파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이 러시아에 위협적인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러한 위협이 계몽과 무시라는 온건한 정책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러한 생각 위에서 이슬람을 공적인 종교 제도와 사적인 신앙체계로 분리한 후, 이슬람의 전통적인 제도와 기구는 러시아 통치 질서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서 금지하였지만, 개인 신앙으로서의 이슬람에 대해서는 ‘무시’라는 방법을 통해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했다(Brower, 1997: 116-120).

이러한 종교 제도적 특성뿐만 아니라 카우프만은 지역적·종족적 특성에 따라서도 중앙아시아 원주민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 원시적이어서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충성심이 아직 깊지 않은 유목민과 이슬람에 상당히 심취해 있는 정주민(도시민과 농경민)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두 부류의 무슬림 집단에 각기 다른 정책을 적용해서, 유목민은 정주민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단절시키고 정주민은 교육과 계몽을 통해 세속화시키려 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중앙아시아 원주민들에 대한 분류를 전제하는 것이었기에 투르케스탄 주민을 종족적 특성(ethnicity)에 따라 분류하는 연구가 카우프만의 후원 아래 활발히 진행되었다. 즉, 중앙아시아와 관련하여 제정 러시아에서 종족학(Ethnography)이 발전하는 데에는 이 지역에서 이슬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제정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거주민들에 대한 계몽, 원주민들에 대한 (이른바) 종족적 분류, 그리고 경제 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근대화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보다 발전된 체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을 둔 카우프만의 정책은 이후 제정 말 러시아 관료들은 물론이고 혁명 이후 볼셰비키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Brower, 1997: 120-132).

우리는 브라우어의 글을 통해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책이 가지는 특성과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정 정부의 중앙아시아 이슬람 정책은 19세기 초반까지 시베리아와 카프카스에서 시행한 대 원주민 정책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관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한 발 물러나 보다 큰 틀에서 보면, 중앙아시아 지역과 그곳 원주민을 원시적이고 비문명화된 존재로 본다거나 교육과 계몽 그리고 종족 분류 등을 통해 통치에 방해되는 요소인 이슬람이 현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했다는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들 역시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식민 지배 정책의 일환에 불과했다.

VI.

이슬람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러시아는 유럽 그 어느 국가보다도 오랜 시간에 걸쳐 접촉해 온 풍부한 경험을 가진 나라다. 이렇듯 장기간에 걸친 슬라브족과 무슬림 사이의 관계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표트르 1세 이전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 무슬림은, 심지어는 슬라브족이 정치적·군사적으로 우월성을 확보하게 된 이후에도 동등하게 생각하고 존중할 만한 존재였다. 표트르 1세의 유럽화 정책은 무슬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초반까지 제정 러시아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이슬람을 인정하고 무슬림을 동료로 받아들였다. 반면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근대적 사상의 세례를 받은 러시아 지식인들은 자신들을 계몽된 존재로서의 유럽인으로 상정하게 되면서, 러시아인들이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은 본질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이들에게 있어 이슬람은 제정 러시

아의 식민 정책을 방해하는 광신적인 신앙체계이고, 무슬림은 원시적인 생활습속과 종교 신앙을 가진 무지한 존재이자 계몽의 대상일 뿐이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의 일부 관료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추진한 비교적 온건한 이슬람 정책들은 더 이상 동등한 협력 관계의 추구가 아니라 우매한 이교도를 계몽함으로써 제정 러시아의 충실한 신민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시대에 걸쳐 러시아 당국이 시행한 대 이슬람 정책들, 그 이념적 배경들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관계성은 혹여 그것을 ‘실용적 유연성’이라는 한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 시공간 속에서 분명하게 변화해 왔다.

투고일: 2014년 4월 23일 | 게재확정일: 2014년 5월 19일

참고문헌

- 엄구호. 2012.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 동향.” 『아시아리뷰』 2권 1호, 121-152.
- Brower, Daniel. 1997. “Islam and Ethnicity: Russian Colonial Policy in Turkestan.”
In Daniel R. Brower and Edward J. Lazzerini, ed. *Russia's Orient: Imperial Borderlands and Peoples, 1700-1917*.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15-137.
- Crews, Robert D. 2006. *For Prophet and Tsar: Islam and Empire in Russia and Central Asi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unn, T. Jeremy. 2003. “Shaping an Islamic Identity: Religion, Islamism, and the State in Central Asia.” *Sociology of Religion* 64(3), 389-410.
- Hann, Chris and Mathijs Pelkmans. 2009. “Realigning Religion and Power in Central Asia: Islam, Nation-State and (Post)Socialism.” *Europe-Asia Studies* 61(9), 1517-1541.
- Kappeler, Andreas. 2010. “Czarist Policy toward the Muslims of the Russian Empire.”
in Bhavna Dave, ed. *Politics of Modern Central Asia. I. Encounters with Modernity: Russian and Soviet Rule*. London; N.Y.: Routledge, 29-42.

- Khalid, Adeeb. 1998. *The Politics of Muslim Cultural Reform: Jadidism in Central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ko, Gerad. 2011. "The Islamization of the Volga Bulgars: A Question Reconsidered." *Archivum Eurasiae Medii Aevi* 18, 199-223.